*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31일 일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59호

## 김정일장군님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을 만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3월 29일 조선을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을 만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일행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 인도네시아공화국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대통령이 이날 선물을 드리였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남편 따우피크 끼에마스, 외무상 누르 하싼 위라유다, 연구 및 과학기술담당 국무상 하따 라쟈싸, 체신 및 공보담당 국무상 샴술 무아리프, 국무비서 겸 내각비서 밤방 께쏘워, 조선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부하리 에펜디와 그밖의 일행이 참가하였다.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은 **김정일**장군님께 선물내용을 설명해 드리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물을 보시고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이에 앞서 김영남위원장이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메가와띠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수카르노이전 대통령의 딸인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의 조선방문은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을 환영하여 3월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차렸다.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과 일행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일성**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되였다.

**조선신보 2002/03/30**

## 민족분렬을 지속시키려는 반통일선언

### 조평통 대변인,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로선≫ 규탄성명 발표

≪한나라당≫패들은 이른바 ≪대북기본로선≫이란데서 ≪분리원칙≫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체제를 감히 걸고 들면서 북남사이에 진행되는 협력교류에 대해 ≪상호주의≫와 ≪투명성≫이라는 차단봉을 내들고 사실상 반대해 나섰다.

그들은 또한 ≪평화보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은 절대로 할수 없다≫는 이른바 ≪선평화, 후교류협력의 원칙≫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들고 나왔다. 심지어 ≪한나라당≫것들은 ≪북부개발계획≫이라는 터무니 없는 망상까지 드러내 놓았다. 이것은 ≪한나라당≫이야말로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보여줄뿐이다.

≪한나라당≫이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존엄인 우리의 체제를 감히 걸고 든것은 우리의 ≪제도변경≫을 운운한 정치불량배인 부쉬의 망발을 되받아 외운것으로서 미제의 부추김밑에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 보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로선≫이라는것이 남조선언론들도 지적하고 있는것처럼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북남기본합의서에 전면배치되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적인 범죄문건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한나라당≫이 그 무슨 ≪상호주의≫와 ≪투명성≫이라는것을 들고 나온것도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민족안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들사이의 관계로 만들어 통일에 훼방을 놓기 위한 고약한 반민족적사고의 표현이다. ≪한나라당≫의 ≪선평화, 후교류협력≫이라는것은 북남사이의 협력교류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나라당≫놈들이 꾸며 낸 ≪대북기본로선≫을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의 돌격대로 나서려는 반공화국전쟁선언으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 막고 민족분렬을 지속시키려는 반통일선언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이름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이러한 추악한 범죄문건을 조작해 낸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증대될것이며 6.15북남공동선언이 날아 나고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 민족민주운동세력이 탄압당하게 될것은 명백하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모든 통일애국세력은 리회창과 ≪한나라당≫을 단호히 반대배격해 나서야 하며 놈들의 집권책동을 결사분쇄해야 할것이다.

**조선신보 2002/03/30**


**2 노작**
- 주체사상에 대하여

**4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20돌**
-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발표 기념
- 사상이론의 대가
- 선군정치의 뿌리는 주체사상
- 유명한 철학가
- 21세기 향도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7 세기와 더불어**
- 5장 2절 9.18사변 (1)

**8 구국의 소리**
-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대북기본노선≫
-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29일
-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자 석방투쟁
- 치졸한 행위의 극치

**10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29일 보도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은 혁명의 재보

**12 평양방송**
-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발표

**13 아리랑뉴스**
-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된다
- 평택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 속빈 강정으로 국민 호도하지 말라
- 핵전쟁을 획책하는 미국
- 부시, 제네바 합의 파기할 것
-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대집단예술 ≪아리랑≫

**15 운동강좌**
-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전략전술 (3)


## 전국민중대회 진행

전국민중연대는 3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동자, 학생 등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발전소 매각 문제등 최근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중연대는 ≪집권말기의 정부가 무리하게 발전소 매각을 추진하고 차기전투기사업도 미국을 내정해 둔 상태에서 평가운운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물론 학생, 빈민 등 우리 국민은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달 2일 총파업을 경고했다.

민중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발전산업 매각저지 △공무원노조 합법화 △FX(차기전투기)사업 중지 △교육시장화 저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 △영세노점상 단속중단 △영세노동자 희생없는 노동시간 단축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등 8대투쟁과제를 제시,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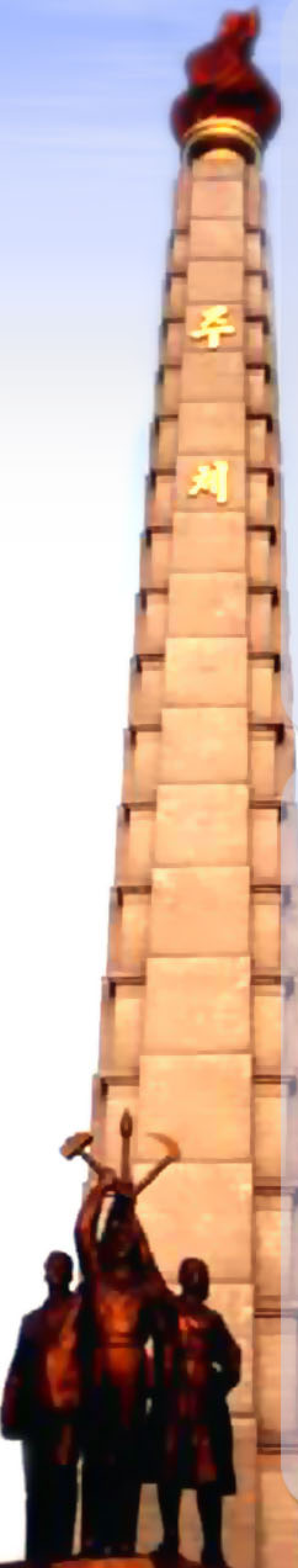
본행사에 앞서 노조탄압 규탄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가 사전행사 형식으로 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렸다.

민주노총과 전날 대규모 집회를 가졌던 교육학생연대 소속 대학생들, 탑골공원에서 노점 강제단속 항의집회를 가진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 수백명이 집결했다.

**인터넷 한겨레 2002/03/30**

# 주체사상에 대하여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 주체71(1982)년 3월 31일




## 3.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 2)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인류사회의 발전역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모든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인류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사회적 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습니다.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모든 투쟁은 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정치적 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입니다.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살며 활동하려면 자주성을 짓밟고 억누르는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수어야 합니다. 낡은 사회제도를 없애고 사람들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를 세워야 인민대중은 사회와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입니다. 사람이 살며 발전해 나가려면 반드시 자연에 작용하여 물질적 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하여야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개조하는 투쟁은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상문화적 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입니다. 사람은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건전한 문화를 소유하여야 자기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하여 나갈 수 있으며 자주적인 존재로서 참답게 살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룹니다. 사람은 사회적 예속과 자연의 구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고속에서 해방되어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인 만큼 우선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은 사람이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서나 사상문화적 발정을 이룩하는 데 열쇠로 됩니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생산력을 발전시켜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으며 반동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적대계급들로 분열된 이래 인류사회가 지나온 전역사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혁명의 역사입니다. 사회혁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고 사회가 발전하여 왔습니다.

역사상 자주성을 위한 피착취근로대중의 첫 진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예폭동과 그리고 중세기 농민들의 반봉건 투쟁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나 봉건제도가 붕괴된 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전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민대중을 얽매어 놓은 노예의 철쇄를 봉건의 사슬로, 다시 자본의 멍에로 바꾸어 놓았을 뿐 계급적 지배와 압박자체는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인류사회역사에서 자본주의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 지배와 민족적 압박을 결합시킨 횡포한 억압제도입니다.

자본주의제도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발전에서 역사적인 전환으로 됩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억누르는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되며 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개조와 함께 자연개조, 인간개조가 또한 중요한 역사적 과업으로 나섭니다.

인민대중은 인류사회발전의 전기간에 걸쳐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며 사상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여 왔습니다.

인류사회의 여명기에는 사람들의 창조적 힘도 약하고 사상문화적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인민대중은 오랜 세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하는 힘을 키우고 지식을 쌓으며 생산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자신의 사상의식수준,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왔습니다. 인류사회가 도달한 현대과학과 기술, 선진사상과 문화는 모두 인민대중이 벌여 온 역사적인 투쟁의 결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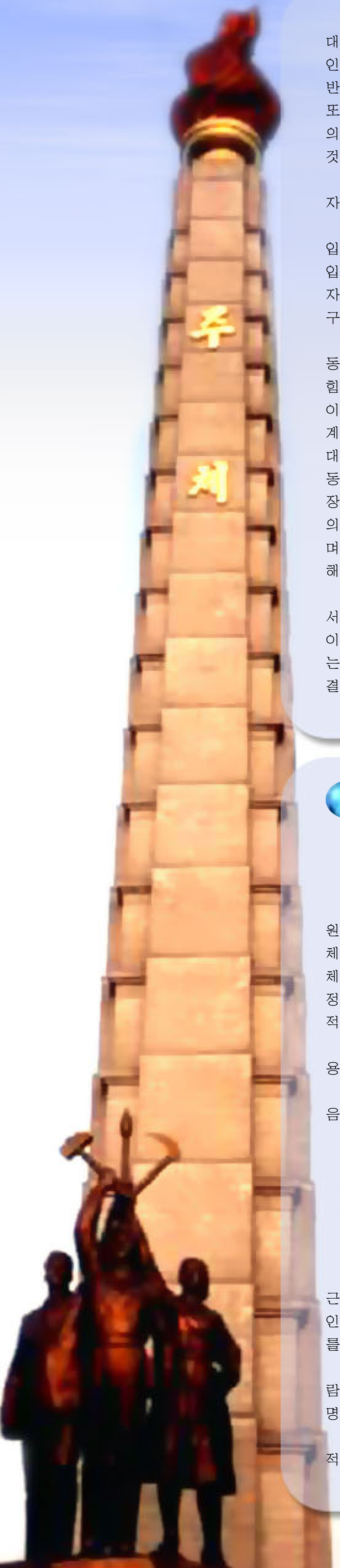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의 과업, 다시 말하여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힘있는 존재로, 혁명적인 사상과 문화의 참다운 소유자로 만드는 역사적 과제는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하에서만 전면에 제기되고 훌륭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제도의 혁명적 개조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회주의하에서는 사회적 억압에서 해방된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자연개조, 인간개조 사업이 중요하게 나서게 됩니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위에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완전히 실현되게 됩니다.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세력이 국제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만큼 제국주의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역시 국제적인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에 의하여 독립과 자주권을 짓밟히고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 온 어젯날의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은 역사적 처지와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투쟁전선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은 반제국주의의 혁명적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 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하고 모순에 찬 세계질서를 부숴버릴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통하여 그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류사회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에 의한 계급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영영 끝장내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을 청산하고 그 구속에서 사람들을 종국적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사회와 자연의 주인,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완전히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인간의 절대적인 요구이며 빼앗길 수 없는 기본권리입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반

##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있습니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발전과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대하며 투쟁하는 것은 응당한 것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주성을 위하여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는 것이며 또한 자주성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창조적 지혜와 힘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주성을 옹호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입장을 튼튼히 지켜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자주적 입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입장입니다. 자주적 입장을 지키는 것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인 혁명투쟁 자체의 요구입니다.

자주적 입장은 철저한 혁명적 입장, 노동계급적 입장입니다. 노동계급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하고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역사적 위업입니다. 자주적 입장과 어긋나는 그 어떤 입장도 노동계급의 입장, 인민대중의 입장과 인연이 없으며 그것은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에 해로운 것입니다.

자주적 입장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서 표현됩니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맞게 처리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인인 그 나라 인민에게만 있습니다. 매개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마땅히 그 나라 인민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매개나라 인민이 자기의 이익을 고수하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관철할 수 있습니다. 매개나라 인민은 밖으로부터의 그 어떤 압력이나 간섭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눌리거나 얽매어 자기의 문제를 자신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며 남의 의사를 따르며 자기의 이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주적 입장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서 표현됩니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이기때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마땅히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은 어디까지나 자기자신의 힘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려 하거나 남의 덕으로 자기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주인된 입장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주적 입장을 지켜야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나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기나라 혁명문제, 자기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매개나라 인민들은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의 자주성을 튼튼히 지킬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의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남의 자주성을 짓밟고 억누르는 것도 반대하여야 자주성을 옹호하는 참다운 입장에 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주성을 짓밟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있습니다. 자주성을 요구하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발전과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적 시대도 전적으로 자주성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인민들에게 속합니다.

(내일 계속)

**정치사전**

# 주체사상에 대하여 (2)

로작의 둘째 체계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서는 주체사상의 기초원리와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을 밝히였다. 문헌의 이 체계에서는 먼저 주체사상의 기본원리를 정립하고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주체적해명을 주었다.

로작은 우선 주체사상의 기초원리의 내용과 독창성을 밝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입니다.≫**
> **(≪주체사상에 대하여≫, 9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밝히였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한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이다.

로작은 다음으로 주체사상이 밝힌 철학적원리가 기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주체적리해를 밝히였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속성이며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속성이며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속성이다. 사회적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유일한 개조자로 된다.

로작의 이 체계에서는 다음으로 주체사상이 제시한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밝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하였습니다.≫**
> **(우와 같은 문헌, 12페지)**

로작은 먼저 주체사상이 천명한 사람위주의 세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물질성이 해명된 조건에서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해답을 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밝혔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주체적견해이다.

로작은 다음으로 주체사상이 천명한 사람중심의 세계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밝혔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세계에 대한 주체의 관점과 립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수 있게 하는 참다운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이다.

(내일 계속)

#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의지

1일부 이곳 신문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19돐에 즈음하여 론설을 실었다.

주체 71(1982)년 3월 31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주체사상의 총서이다.

≪로동신문≫론설의 필자는 지난 기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붕괴되는 복잡한 사태도 조성되였고 우리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력사에 류례 없는 시련도 겪었지만 조선로동 당과 인민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에서 단 한치의 드팀도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 들고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의지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수호전을 이끄시면서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에서 뚜렷이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신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확고부동한것인가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지는 또한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우리 식대로 이끌어 나가시는데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투쟁이 간고할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조선혁명의 주체,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도록 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도록 하시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는 또한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고 끊임 없는 로고를 바쳐 가시는데서 뚜렷이 과시되고 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 내고 조국의 통일과 강성부흥도 이룩할수 있고 주체혁명위업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팀 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민주조선≫ 론설의 필자는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여 주는 위대한 승리의 기치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0년 3월 31일

#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18돐을 기념

31일부 이곳 신문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발표 18돐에 즈음하여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71(1982)년 3월 31일에 발표하신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여 체계화하시였다. ≪로동신문≫은 로작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절대적인 신봉과 무한한 충실성,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특출한 사상리론적예지의 빛나는 결정체이라는데 대하여 쓰고 있다.

로작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끝없는 충실성의 결정체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충실성은 더 없이 순결하고 절대적인것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시였기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사 발전과정을 총화하시면서도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심오히 론증하시는데 모든것을 지향시키실수 있었다. 그리고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원칙에 이르기까지 로작의 전체계와 내용들을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심오성을 깊이있게 보여 주는 사상리론들로 전개하실수 있었던것이다.

로작은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비상한 정력, 시대와 혁명을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전진시켜 나가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결정체이라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백년이고 천년이고 주체사상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주조선≫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 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89년 3월 31일

#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한 불멸의 업적

신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17돐을 기념하였다.

≪로동신문≫론설의 필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사상의 진수를 견결히 고수해오시였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지난 5년간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쓰고있다. 지난 5년간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은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시고 우리 인민을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로, 견결한 옹호자로 키우시였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신데있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은 특히 지난 5년간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은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혁명성, 독창성을 뚜렷이 밝히고 그 보물고를 끝없이 풍부화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그이께서는 이 나날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사상의 혁명적진수를 빛나게 고수해오시였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은 주체사상이 저들의 ≪1극세계≫에 파렬구를 내는 사상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 견인력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주체사상을 끝없이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들은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는 무자비한 철추로 되고있다. 희세의 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주체사상의 견인력은 더욱더 높아지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88년 3월 31일

# 사상이론의 대가

사상이론가의 위대성은 그가 이룩한 사상이론적 업적의 크기에 의해 평가된다.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신 **김정일**장군님은 사상이론의 위대성으로 하여 20세기에 이어 21세기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히는 사상이론의 거장으로, 향도의 태양으로 만인의 절대적인 존경과 다함없는 신뢰를 받고 계신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류사상 그 어느 사상이론가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이론적 예지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1982년 3월31일 저술발표하신 명저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창시경위와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와 지도적 원칙, 역사적 의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되어 있다.

하여 저작은 주체사상을 새롭게 종합체계화한 주체사상총서로, 인류자주위업수행의 빛나는 앞길을 명시한 교과서로, 불후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세인의 폭풍같은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자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김정일**장군님의 특출한 공적이자 그분의 뛰어난 사상이론적 예지와 천품의 빛나는 열매이다.

사상이론의 대가로서의 그분의 위대성은 특출한 탐구력과 창조적 사색이다. 그분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깊이 파고들어 그 본질과 이치를 밝혀낼 때까지 정력적으로 탐구하고 사색하시며 항상 창조적, 과학적 안목으로 고찰하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사업을 이끄시던 그 나날에는 물론 오늘도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신 그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선군혁명이론을 비롯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론들을 내놓으셨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통사람들은 가늠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자그마한 변화까지 예민하게 포착하시고 그 본질과 발전추이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며 하나에서 열, 백을 헤아려 보신다. 1965년 봄 그분께서는 ≪이제 두고보시오. 인류는 주체의 궤도를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 말씀은 인류가 머지 않아 주체사상의 기치를 따라 나아갈 것이며 주체의 사조, 자주의 사조가 세계적인 사조로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오늘의 상황은 그분의 예언그대로 주체사상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되고 역사는 주체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고 있다.

그분의 비범한 통찰력과 명철한 분석판단력을 보여주는 사실들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소련붕괴에 대한 예언, 이집트전쟁에 대한 예언, 캄보디아내전에 대한 예언...

그분의 이러한 능력은 사물현상과 사회현상 속에서 본질을 이끌어내시는 명확한 투시력, 과학적인 결론의 총체이다.

역사적인 북러모스크바선언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일**장군님께서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초점으로 되는 문제들을 잡아쥐시고 그 해결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사상이론의 대가로서의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은 비상한 기억력과 폭넓은 지식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그분께서는 한번 보고 듣고 체험하신 문제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으시며 그것을 매우 정확히 기억하신다.

최신항공기술자료의 출처에 대한 말씀은 그분께서 지니신 신비로운 기억력에 대한 반증이자 그분께서 지니신 지식의 세계의 무한대함을 가늠케 하는 또 하나의 자그마한 일례이다.

그분께서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와 최첨단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을 무한히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하고 계신다.

지난해 1월과 7~8월에 있은 중국과 러시아방문에서 두 나라 컴퓨터전문가들과 전기기술자들을 놀라게 하신 사실만 놓고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사상이론의 대가로서의 **김정일**장군님의 출중한 능력은 비상한 저술력이라 할 수 있다.

그분께서는 벌써 10대에 시대와 실천이 요구하는 사상이론을 내놓으시었다. 노동자계급의 수령들의 저술활동을 보면 마르크스는 17살에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청년들의 숙례≫라는 작은 습작형식의 글을 남겼고 레닌은 23살때 ≪농민생활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제적 동향≫이라는 첫 논문을 발표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학시절인 1957년 9월에 ≪학습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울데 대하여≫, 1958년 9월 ≪당적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민청단체들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등 고전적 의의를 가지는 저작들을 발표하시었다.

그분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당무를 보시는 기간인 1964년부터 1994년 6월까지 무려 8백90여건의 달하는 저작들을 발표하신 사실은 그 어느 사상이론가들에게서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연평균 30편의 저서, 논문을 발표하신 것으로 된다.

선행고전가들은 많은 경우 1편의 저작을 위해 고요한 서재에서 몇달 혹은 몇년씩 잠겨있으면서 저술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전반을 영도하시는 바쁘신 속에서 그것도 짬시간 혹은 두가지, 세가지 일을 하면서 저술활동을 벌이시였다. 그러시면서도 그분께서는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를 비롯한 전문철학저작들과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텔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음악예술론≫,≪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등 당, 정권, 군대, 근로단체건설에 관한 문제, 경제건설, 문화건설, 인민생활로부터 세계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들에 과학적이며 선행시대에는 나오지 못했던 독창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의 저술력은 내용의 폭과 철학적 깊이에서, 독창성과 풍부성, 시대성, 저술속도와 그 방대성에서 그 어느 사상이론가와도 비견할 수 없는 초인간적 능력인 것이다.

그렇다. **김정일**장군님은 인류사에 일찍이 없었던 사상이론의 대가이시다.

바로 사상이론의 대가, 천재적인 사상이론가를 21세기 태양으로 모시고 있기에 오늘 인류는 어둠을 가시며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철민 - 구국전선 주체91, 3월 21일

# 선군정치의 뿌리는 주체사상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20세기 가장 엄혹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시고 위대한 선군시대를 열어놓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는 자신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앞으로도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을 지키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나온 주체위업, 민족자주위업완성을 위한 특유의 정치방식이다.

민족의 자주위업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해 왔다.

지금까지 이북에서 실시돼 온 모든 노선과 정책, 정치방식은 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 있다.

바로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가 나오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투쟁 속에서 일심단결도,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도 생겨났다.

그러면 왜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민족자주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는데 있다.

이북에 혹심한 자연재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의 포악한 고립압살책동까지 겹쳐들었던 ≪고난의 행군≫시기는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때 미국은 이북이 붕괴되거나 동유럽나라들처럼 ≪자본주의에로 복귀≫되는 어떤 정책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떠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우리는 오직 수령님 식대로 주체사상을 틀어쥐고 나갈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고 이북군민을 그 실현에로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이 나날은 주체사상으로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세계정치사에 처음으로 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인 선군정치가 창시되고 빛나게 구현되어 온 나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수호하고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해 나가자면 총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인민군대를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해나가는 특유의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었다.

이처럼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탄생하였다. 그리고 민족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완성된 정치방식으로 되었다.

그것은 다음으로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데 있다.

선군정치는 주체위업완성에서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을 오늘의 시대적 조건에 걸맞게 훌륭히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변혁운동의 기본담당자인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일데 관한 문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거머쥐고 나갈데 관한 문제 등 주체사상의 모든 원칙과 요구들이 선군정치에 의하여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고 있다.

주체사상의 요구인 자주적 입장을 견지할데 관한 문제만 보더라도 선군정치는 주체사상, 사회주의제도, 주체위업을 견결히 수호하고 빛내임으로써 통일조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방식,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게 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무적의 군력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며 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주체적 힘에 의거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며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해 나가게 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펼쳐진 지난 몇년간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사상,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이북이 이룩한 성과들은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박소영 - 구국전선 주체91, 3월 21일

# 유명한 철학가

오늘 세인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신 세계정치의 원로로, 사상이론의 대가로, 유명한 철학가로 높이 칭송하면서 우러러 경모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인민연맹 가리브네와즈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일성**동지께서 민중이라는 토양위에 주체사상의 씨를 뿌리고 키워오시였다면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무성한 숲으로 가꾸시고 풍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었다. 그분은 철학적 조예를 천품으로 지니신 세계 철학계, 사상계의 으뜸가는 정치철학가, 사상이론가이시며 정치의 대가, 영도의 거장이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를 하자면 철학을 알아야 한다.

지도자의 지도수준과 지도능력은 그가 어떤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올바른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신념이 있고 권위있는 정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는 갈팡질팡하는 정치, 민중을 떠나 둥둥 떠다니는 정치를 하게 된다.

사상이론의 대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은 세계가 공인하는 유명한 철학가이시다.

유명한 철학가로서의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성은 철학적 조예가 깊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뛰어난 슬기와 예지를 천품으로 지니신 그분께서는 학창시절부터 남달리 철학적 문제들에 흥미를 가지고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기를 좋아하셨다 한다.

그분께서는 대학시절에 벌써 명저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세울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세계관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견해를 밝히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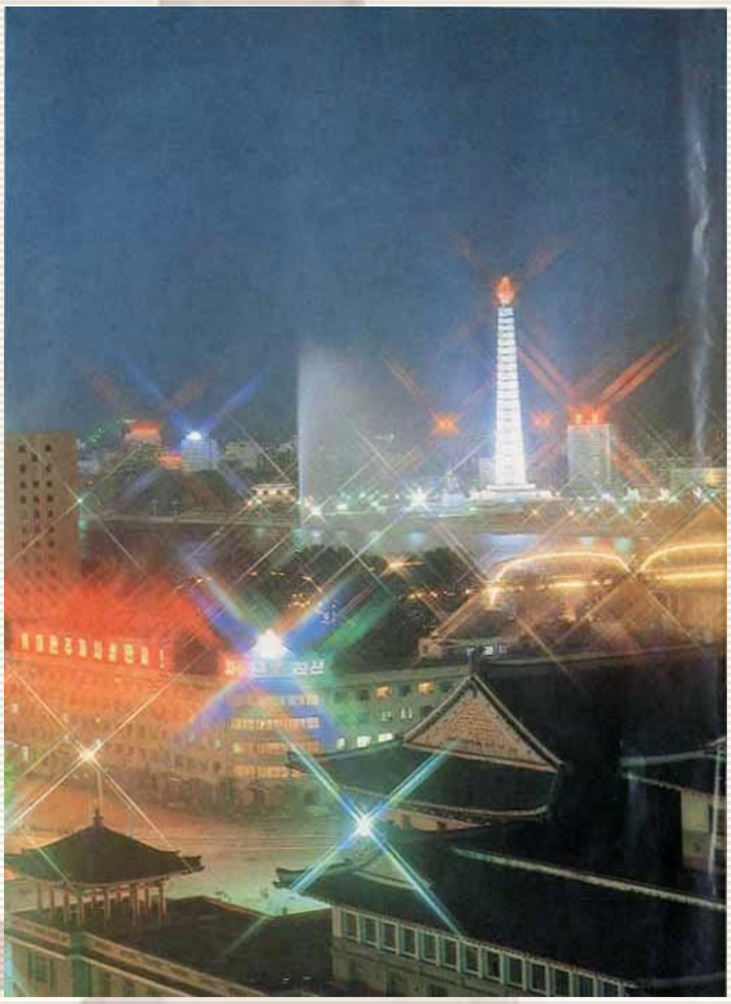
그분께서는 저작에서 사람이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입장에서 대하여야 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철학의 대가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시었다.

유명한 철학가로서의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성은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신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일성**주의에 대한 정의는 주체사상의 대가이시고 뛰어난 철학가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만이 천명할 수 있는 유명한 정식화이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또한 현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새로운 원리들과 내용들로 주체사상을 더욱 풍부화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숭고한 충정과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철학가, 위인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시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인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등 수많은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새로운 원리들과 내용들로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예하면 위대한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내용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단순히 사상이론활동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시키는 사업과 대외선전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심으로써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게 하시어 위대한 정치가, 철학가로서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하여 오늘날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중의 토양위에 씨앗을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은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무성한 숲으로 자라나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 주체사상이 세계적 판도에서 연구보급되고 수많은 나라 정당들이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변혁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세상에서 으뜸가는 철학가이시고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영수님을 모신 것은 참으로 민족의 자랑이고 무상의 영광이며 대행운이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고 무궁토록 번영할 것이다.

**강철규 - 구국전선 주체90, 5월 11일**

# 21세기 향도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21세기 **김정일**시대≫

오늘 세계의 많은 정계, 사회계, 학계 인사들과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주석의 존함과 결부시켜 그분의 사상을 정식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켜 우리 시대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과학적 해답을 주신 탁월한 사상이론적 공헌을 높이 칭송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21세기의 향도이념으로 따라배우고 있다.

방글라데시인민연합당 위원장은 친애하는 지도자각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로 정식화하신 것은 인류사상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고 높이 칭송하였으며 러시아신문 글라스노스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이라는 글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정연하게 체계화하시었을 뿐 아니라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심화발전시키시었다고 썼다.

인디아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은 그분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독창적인 탐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역사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계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니스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한때 레닌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선언을 공산주의에 대한 노래의 노래라고 찬양하였는 데 그 표현수법대로 말한다면 **김정일**각하의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참다운 인간위업에 대한 노래의 노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노래의 노래이며 인류의 참다운 이상과 끝없는 번영에 대한 노래의 노래이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사상이론은 세계민중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 있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사상이론을 연구학습하고 따라배우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사상이론을 연구하고 따라배우기 위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김정일**영도자노작연구조직들이 수많이 생겨나고 **김일성**-**김정일**주의 신봉자대열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1969년 말리고등사범학교에서 **김일성**동지노작연구소조가 결성된후 지금까지 100여개 나라에 1,000여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김정일**노작연구조직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연구하고 따라배우려는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4개의 대륙별 지역연구소, 수많은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들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연구학습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고 있다.

세계민중 속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사상이론을 연구학습하기 위한 활동은 최근 수년간 더욱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존함을 모신 연구조직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대대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수년간에만도 레바논 **김정일**동지사상이론연구소조, 인디아 **김정일**동지노작연구학회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조직들이 나왔다. 특히 일본에서는 최근에 후꾸시마 **김정일** 저작연구회, 시즈오까 **김정일** 저작연구회, 도야마 **김정일** 저작연구회, 오사까 **김정일**저작연구회, 고찌 **김정일** 저작연구회, 도꾜 **김정일** 저작연구회 도꾜교직원 **김정일**저작연구회, 도꾜 **김정일**저작학습회, 도꾜 **김정일**비서를 따라배우는 회 등 연구조직들이 결성되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일본 **김정일** 저작연구회전국조직을 결성하는 데 이르렀다.

이러한 조직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사상이론을 연구보급하는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한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 강습들이 연평균 3, 600여회나 조직되었으며 최근 10년동안 그 총횟수는 36,000여회에 달하였다. 이것은 아시아지역에서 매일 적어도 10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연구회합들이 진행되어왔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사상이론을 따라배우려는 민중의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김정일**영도자의 노작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다.

**김정일**영도자의 노작들은 지난 10년동안 세계 수십개 나라의 민족어로 400여종이나 출판되었으며 190여개 나라에 보급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 이룩하신 사상이론적 업적에 대한 높은 칭송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김정일**영도자께 명예교수, 명예박사 칭호를 수여하고 있는 데서 더욱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페루에서만 하여도 이 나라의 여러 종합대학들에서 **김정일**영도자께 명예교수, 명예사회과학교수, 명예박사, 명예철학박사 칭호를 수여한 건수는 근 20여건이나 된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의 사상이론을 따라배우고 그 사상이론적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은 위대한 영도자께서 제시하신 사상이론의 과학성과 정당성, 그 견인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그리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1세기의 태양으로 세계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릴 것이다고 칭송하였다.

참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1세기에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2권 제4장

##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 2. 9 · 18사변 (1)

나는 안도의 혁명조직들이 자기 궤도에 들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1931년 여름과 초가을 화룡, 연길, 왕청 일대의 지방조직들에 나가 5.30폭동 후 흩어졌던 대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하였다.

내가 돈화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안도, 룡정, 화룡, 류수하, 대전자, 명월구 등지와 련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한창 전개해나가고 있을 때 9.18사변이 터졌다. 나는 그때 돈화근처의 한 농촌마을에서 공청열성자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9월 19일 이른 아침에 진한장이내가 머무르고 있던 마을로 뛰어와 관동군이 봉천을 공격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전쟁이요! 왜놈들이 끝내 불집을 일쿠었소!≫

그는 무거운 짐을 걸머진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숨가쁘게 내지르며 토방우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전쟁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은 진한장의 입에서 눈물겹도록 비장하게 울리었다.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했던 사변이고 또 사변이 발발한 시기도 대체로 예상과 비슷이 맞아떨어졌지만 나는 조선민족과 수억만 중국민족이 당하게 될 재난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도 거대한 전환이 오리라는 예감 때문에 가슴을 떠박지르는 것 같은 충격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후 우리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사태발전의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1931년 9월 18일밤 심양 북대영 서쪽 류조구에서 일본만철회사 소유의 철도가 폭파되었다. 일제는 장학량군이 철도를 폭파하고 일본수비대를 공격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걸고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여 일거에 북대영을 점령하였으며 19일 아침에는 봉천비행장까지 차지하였다.

심양에 뒤이어 안동, 영구, 장춘, 봉성, 길림, 돈화와 같은 동북지방의 대도시들이 관동군과 압록강을 넘어온 조선주둔군에 의하여 련달라 점령되었다. 닷새도 못되는 사이에 일본침략군은 료녕, 길림 두 성의 광대한 지역을 거의다 강점하였으며 전역을 계속 넓혀가면서 금주방향으로 육박하였다.

문자 그대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진상을 오도하며 중국측에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켰지만 세상사람들은 누구도 그들이 내돌리는 여론을 믿지 않았다. 잔꾀가 많은 일제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날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들도 인정하였지만 만철회사소속의 철도를 폭파하고 9.18사변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장본인은 관동군 특무기관이었다. 우리는 그 당시 출판물들에 글을 내여 류조구사건은 만주를 먹기 위한 일제의 모략이며 간계라고 폭로하였다.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앞두고 대기상태에 있던 1931년 9월 18일 아침 이 사건의 조작자의 한 사람인 도히하라겐지 대좌(심양 특무기관장)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다. 그는 조선주둔사령부 고급참모 간다 마사다네를 찾아가서 신문기자들이 시끄러워 군에게 찾아왔다고 자기의 조선방문 리유를 에둘러 설명하였다. 만주사변이 터지면 숱한 기자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성화를 먹이겠는데 그 성화가 싫어서 미리 조선으로 도피해왔다는

918사변. 피바다에 잠긴 동북

소리였다.

같은 시각 일본항공본부장 와다나베 죠따로 대장은 서울을 방문하여 조선주둔군 사령관인 하야시 센쥬로 대장과 함께 백운장이라는 큰 술집에서 연회를 차리고 휴식을 하였다고 한다. 만주사변과 같이 어마어마한 불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행차치고는 너무나도 안온하고 여유작작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력사기록을 읽게되면 어째서인지 조선전쟁이 발발하던 때에 트루맨이 별장에 가서 지내던 일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가 9.18사변과 조선전쟁이라는 서로 다른 두개의 전쟁에서 일맥상통한 점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두 전쟁 다 선전포고 없이 돌발적으로 개시되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그 두 사변을 도발한 인간들의 면모에서 제국주의들에게 고유한 교활성과 파렴치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성과 지배주의적 본성을 다같이 찾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력사를 비반복적인 사건들의 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개개의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류사성과 공통적인 경향성을 우리는 또한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 9.18사변과 같은 사변을 도발하여 만주를 먹어치우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고한 기정사실로 되어왔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장작림폭사사건을 조작했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으며 ≪농학사≫의 신분을 가지고 간첩활동에 종사하던 관동군 참모본부 소속의 나까무라대위의 ≪실종≫사건이 꾸며졌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다.

나는 특히 만보사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만보산은 장춘에서 서북쪽으로 70-80리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다. 만보산 사건이란 바로 이 마을에서 수로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이주민들과 중국 원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말한다. 조선이주민들이 논을 풀려고 이통하 물을 끌기 위한 물길을 팠는데 그것이 그만 중국원주민들의 밭을 침범하게 되었다. 이토하를 막으면 장마철에 또한 강물이 범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해 나서게 되었다.

이런 때에 일본인들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조선농민들을 사촉함으로써 분쟁은 확대되고 조선 국내에까지 파급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내는 결과를 빚어냈다. 농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지방적인 분쟁을 민족리간책에 솜씨있게 리용한 것이다.

만일 그때 일본사람들이 리간질을 하지 않았거나 조중농민들 중에 선각자가 있어 리성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하였더라면 분쟁은 간단한 언쟁으로 그치고 그 이상 확대되어 서로 마스고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하여 조중인민들 사이에는 더 큰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반감이 조성되었다.

그때 나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 때문에 비슷한 불행을 겪고 있는 두 나라 인민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피투성이 싸움을 해야하는가, 항일이라는 대전제 밑에 두 나라 민족이 손을 굳게 잡고 공동투쟁에 나서야 할 때 물길 하나를 놓고 서로 악에 받쳐 ≪골육상쟁≫을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졌는가, 과연 이것이 누구한테 리롭고 누구한테 해로운 일인가 하고 거듭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문득 이 사건이 미리 꾸며진 연극으로, 박두해 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변의 전주곡으로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장춘령사관들이 농민들의 우발적인 충돌에 끼여들어 조선사람들의 리권을 ≪옹호≫해 나선것부터가 미심쩍었다.

≪토지조사령≫과 같은 략탈적인 법령으로 조선의 농토들을 배앗고 살인적인 농정을 실시해 온자들이 갑자기 보호자로 둔갑하여 우리 농민들을 ≪옹호≫해 나선 것은 사실상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치만화였다. 장춘의 ≪경성일보≫지국이 본사에 서둘러 만보산의 분쟁을 통지한 일도 그렇고 국내에서 신문호외를 찍어 조급하게 배포한 것도 모두 수상하게 여겨졌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을 리간시키기 위하여 일제의 영악한 두뇌들이 지방적인 자그마한 분쟁을 민첩하게 악용하여 엄청난 모략을 꾸몄는데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놈들한테는 무엇 때문에 그런 모략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간도 오가자에서 혁명조직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분명 무엇인가를 다급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만보산사건의 여파가 채 가셔지지도 않은 그해 여름의 나까무라대위≪실종≫사건은 중일관계를 전쟁첩경에로 이끌어나갔다. 이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본토에서는 련일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도꾜의 청년장교들이 야스구니진쟈에 모여 나까무라의 위령제를 지내고 자기들의 피를 뽑아 일장기를 그렸는가 하면 그것을 신사나무에 높이 띄워놓고 국민들의 전쟁열을 고취시키었다. 형형색색의 만주관계단체들은 만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귀가 아프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내일 계속)

만주에서 군사행동을 벌이고 있는 일제관동군

#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대북기본노선≫

아시다시피 최근 한나라당내에 조직되어 있는 국가혁신위원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대북정책의 골격으로 되는 이른바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걸 꾸며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한나라당은 이북의 정권과 국민을 분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선평화, 후교류협력≫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국토개발계획≫을 마련해 제시해야한다는 것 몇개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시대의 흐름과 민의에 역행해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또하나의 산증거입니다.

우선 한나라당이 당국사이의 교류협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추진돼야하지만 북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투명성만 보장되면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감히 북의 정권과 국민을 분리해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거야말로 반북반동적인 궤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북에서는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고 직접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북정권과 국민은 일심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과 국민을 갈라놓고 ****해야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대통령 부시가 이북의 민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비방중상하면서 제도변경을 운운하며 ***이라는 망발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배제되는 것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얼토당토않는 주장은 결국 남북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선평화, 후교류협력≫의 원칙주장 역시 궤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사회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의 지름길을 개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지금까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것을 서로의 긴장완화에로 이어가던 역대정부의 접근법을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부 관계자들까지도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을 따를 경우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연치 않다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른바 한반도 ≪국토개발계획≫수립 주장 역시 망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개발로 말하면 이북에서 알아서 처리할 이북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제넘게 한나라당이 그 무슨 국토개발계획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저들의 흡수통일야망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전쟁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먹겠다는 것인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곧 핵전쟁으로 번져 남북민중이 공멸할 것은 물론 우리 나라 국토는 영원 불모지로 전변될 것은 뻔합니다. 따라서 흡수통일은 곧 민족의 공멸을 의미합니다.

제반 사실은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것은 ≪악의 축≫망발과 ≪핵테세 검토보고서≫를 발표한 미국의 대북침략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인 전쟁선언이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분열과 대결의 선언이라는 것을 웅변합니다.

극악한 사대매국집단, 반통일호전집단인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차기 대권을 장악할 경우 우리 민중과 겨레가 통일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외세의 핵참화를 면치 못할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한나라당은 범죄적인 대북기본노선을 버려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한나라당을 타도하며 그들이 차기 대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반한나라당, 반이회창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9일**

##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29일

### 완전무결한 최고걸작품

얼마전 업무차로 홍콩을 다녀온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성열씨가 지난 3월 20일 동료들과 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북의 ≪아리랑≫공연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홍콩고찰단이 찍어온 이북의 ≪아리랑≫공연 연습장면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흠잡을데 없는 완전무결한 최고걸작품이였다. 체육율동과 음악무용예술이 조화되어 신비경을 이루는 매장면들은 볼수록 황홀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정말 수만명의 사람들이 한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내용면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이북식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들이 가슴 찡하게 안겨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선수권대회가 있다고 하면 이북은 단연 특등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공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북의 ≪아리랑≫공연과 같은 대걸작은 정치에서도 으뜸이시고 사상에서도 제일이시고 예술에서도 최고이신 영도의거장 **김정일** 장군께서만이 펼칠 수 있다.≫

김씨는 이어 흥분을 금치 못하며 이렇듯 훌륭한 ≪아리랑≫공연을 못본다면 일생의 한이 될 것이라고 말해 동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 중앙위원회 서한 발표 관련 평양대표부 기자회견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전체 이남민중이 거족적인 반미반부시투쟁에 일어날 것을 호소하는 ≪한민전≫ 중앙위원회 서한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28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광기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터무니없이 몰아붙이면서 반테러전쟁의 무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한반도에로 옮기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부시가 지난 2월 서울을 행각해 북침전쟁도발에 대해 최종점검한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얼마전에 핵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하며 이북을 포함해 7개 나라를 핵공격대상국가로 지명한 것이 드러나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런 속에서 사상 최대의 북침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해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책동이 반테러의 미명하에 버젓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는 미국이 반테러라는 ***을 내리고 북침전쟁도발에 광분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얻을 것이란 수치와 파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민전≫은 민족의 생존과 존엄, 자주권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수호하고 이행해나갈 확고한 의지로부터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주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취했으며 그 일환으로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을 발표했다면서 ≪한민전≫중앙위원회 서한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이남에서 거세차게 벌어지는 반미반부시투쟁을 보여주는 녹화물이 방영됐습니다.

### 범청학련관련 구속자 석방대책위원회 결성

범청학련 남측본부, 민가협, 전농,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청학련관련 구속자 석방대책위원회≫가 26일 결성됐습니다.

서울 향린교회에서는 범청학련 관련 구속자석방을 위한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과 결성식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2일 국정원이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등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몰아 연행한 사실과 그들이 연행된 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싸우고 있는데 대해 통보했습니다.

이어 민가협 상임의장이 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는 국정원에 의한 이번 탄압은 막무가내식 탄압의 전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범청학련 관련자들을 탄압하는 공안당국의 태도는 전쟁분위기로 긴장되어 있는 정세를 틈타 6.15공동선언지지세력과 애국민주세력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의도외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국의 탄압이 6.15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범청학련관련 구속자 전원석방과 국정원해체, 범민련과 범청학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범청학련관련 구속자석방대책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됐습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국정원을 항의방문했습니다.

### ≪F-15K≫선정 관련해 국방부 최실장 고발
### 6개 시민단체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F-15K≫기가 사실상 내정된 것과 관련해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을 28일 오전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방부가 ≪F-15K≫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한 것은 국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며 기종선정과정에서 최실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전쟁을 획책하는 미국
### ≪민족시보≫ 3월 21일자

재일교포 신문 ≪민족시보≫ 3월 21일자가 ≪핵전쟁을 획책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지금 부시정권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핵공격을 계획하고 신형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밀보고서 ≪핵태세 검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 계획이야말로 이성을 잃은 부시의 몰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핵무기로 세계 제패의 야망을 달성해보려는 미국의 추악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삼아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미국의 비인간적인 전쟁책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흐름을 가로막고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들려고 날뛰는 부시행정부의 위험천만한 책동을 남북이 단결해 막아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자 석방투쟁에 부쳐

서울대 학생 이성씨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이 땅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의 반미항전의지로 하여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 있다. 그 반미항전의지는 특히 서울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투쟁들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고조를 이루고 있다.

애국학생들을 탄압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범죄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담아 한총련중앙에 이어 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 총학생회들에서 성명을 비롯한 각종 문서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경기대 등 여러 대학의 학생들은 각종 모임을 가지고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자들의 석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비단 우리 청년학생들 속에서만 울려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다.

민중연대 4월회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지고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 구속자석방실천단을 구성하였으며 전국연합과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여러 운동단체들의 각계층 인사들은 좌담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들에서 당면하여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에 주력할 것을 호소했다.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들이 벌이는 이같은 투쟁들은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의 정당성과 농성자들에 대한 탄압의 부당성을 더욱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부시행각반대투쟁평가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은 우리 겨레의 자존심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국민들의 반미투쟁의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뚜렷이 시위하고 미국에 경종을 울린 의로운 장거였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간의 관계에 냉기류를 몰아오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같이 북침을 겨냥한 각종 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여놓으며 화해의 열기로 끓어번지던 한반도를 행성 최대의 긴장지대로 되돌려놓은 미국, 그 미국에 대한 원한과 분노, 증오가 그대로 들불이 되어 반미반부시항전으로 타올랐고 미상공회의소점거와 같은 적극적인 실천투쟁도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미국은 저들이 몰아온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속에서 생존의 마지막 탈출구를 찾아 헤매이는 꼴이 되었다.

청년학생들이 전개한 이번 농성을 테러사건으로 규정하고 농성자들을 테러분자로 낙인한 것을 통해서도 미국이 날로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반미의지앞에서 얼마나 당황망조해 하고 있으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가를 천으로 만으로 알 수 있다.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파멸의 나락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미국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투쟁이 갖는 의미가 자못 크다.

반미항전의 투사들을 구출못하고 어떻게 반미열풍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민중의 반미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미상공회의소점거투쟁에 테러의 모자를 씌운 것은 폭발지경에 이른 민중의 반미감정을 힘으로 제압해보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 청년학생들은 검거된 농성자들을 기어이 구출해냄으로써 민중의 반미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성명발표, 인쇄물배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의 정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광범히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각계층 민중 모두가 애국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한 투쟁에 지지성원을 보내고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년학생들은 부시방한을 계기로 성조기소각, 미상공회의소점거, 보잉사간판점거, 미국대사관으로의 진출과 같은 투쟁을 벌이던 기세로 반미의 항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반미항전은 시류를 타고 전개되는 시한적 운동일 수 없으며 주기적으로 출몰하는 산발적 운동도, 주위환경에 따라 고조되는 감성적 운동도 아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이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자들의 석방을 요구해 반미투쟁의 불길을 높일수록 이 땅에서 반미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며 반미기운이 고조되는데 걸맞게 애국학생들이 구출되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청년학생들은 애국학생들에 대한 석방운동을 국가보안법철폐와 한총련이적규정철회를 비롯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투쟁들과 밀착시켜 진행하여 그 공간속에서 활발히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강위력한 반미투쟁의 도수를 더욱 바짝 조이는 계기로 삼고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7일~29일**

# 치졸한 행위의 극치

재야정치인 김지수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씨입니다.

예로부터 뱃속에 욕심만 가득찬 인간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인간은 어떤 물건에 열개중 아홉개를 자기가 가지고 남이 한개만 가졌어도 심술이 꿈틀거려 참지 못한다. 때문에 그 한개마저 빼앗아내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다 부린다.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바로 그런 자이다. 이회창패거리들이 충청북도지사를 찾아가 자민련에서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들어오도록 강요한 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최근 이회창패당들은 충북지사를 찾아가 자민련의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니 자민련에서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들어올 것을 강요했다. 그 전에도 이회창은 여러 차례나 충북지사를 만나 그같은 요구를 제기했고 끝내 그를 한나라당에 끌어들였다. 이것은 이회창이 당의 내분사태를 막고 세확장을 위해 얼마나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역적이고 협잡꾼인 이회창에게서 올바른 행동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집을 수리한다는 구실로 남의 집 재산을 강도질하는 것과 같은 식의 졸렬하고 무례한 작태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회창패거리들의 이 불법무도한 졸속행위는 가장 비열한 정치테러인 동시에 이회창의 비도덕성과 추악성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다.

원래 이회창은 도덕과는 담을 쌓고 있는 무례한이고 건달꾼이다. 대학시기만해도 그는 동도극장이나 클래식다방을 드나들며 주색에 미쳐 돌아쳤다. 그가 미국음악에 심취되어 시간가는 줄 몰랐던 것도 그 음악속에 광적인 환상의 나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가 권투를 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치며 배운 것이란 사기협잡과 절도, 폭행 등의 방랑아적인 생활양식이다.

법관의 감투를 썼을 때에도 이회창은 의로운 민주인사들과 애국학생들에게는 파쇼악법을 휘둘러 부당하게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마구 선고하면서 살인, 강도, 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온갖 사기협잡을 다해 돈을 빨아내고 그들을 비호두둔하며 사회악을 더욱 조장시켰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이런 비루하고 추악한 행로를 거친 이회창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끼론≫, ≪창자론≫, ≪씨말리기론≫은 깡패보다 못한 그의 추한 야성을 보여준 것이고 청렴결백과 대쪽인물을 광고하면서 돈을 빨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날뛴 것은 지독한 돈벌레의 습성을 드러낸 것이다.

정계에 입문한이후 그는 이회창후원회와 같은 사조직들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돈을 빨아들였다. 근래에 와서는 후원회외에도 ≪국가혁신위원회≫와 ≪부국팀≫ 등 각종 사조직들을 발동해 돈을 빨아내는 한편 대재벌의 1세, 2세들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부정착복하고 있다.

최근 호화빌딩과 최고급승용차 등 이회창의 부정비리행위가 여론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회창이 그것도 부족해 이제는 비열한 모략과 정치협잡으로 사람까지 강도질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분격할 노릇인가. 기회있을 때마다 3김청산을 부르짖던 이회창이 다른 야당의 국회의원을 날치기로 빼앗는 행위야말로 3김시대에서 흔히 썼었던 희세의 정치모략이고 비도덕적인 미친 짓이 아니겠는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그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3김청산을 떠들었는지 해괴할 뿐이다. 지금껏 배우고 눈에 익힌 것이 민족반역과 국민기만행위밖에 없는 이회창이 다른 야당의원을 빼돌려 **하는 것쯤은 예사로운 일로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정상인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몰염치이고 날강도적인 부정협잡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불법무도한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대권욕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회창이 권력욕에 환장해 마구 날뛰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어리석은 망상이다. 실제로 이회창의 지지기반인 한나라당에서는 그의 반역행위와 저질행위에 환멸을 느끼고 한나라당에서 탈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치 이회창이라는 초라한 나무에 붙어있던 잎사귀들이 마가을의 낙엽처럼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회창이 다른 나무의 잎사귀를 뜯어다 자기에게 붙인다고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은 제 운명을 다 산 가련한 존재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민중은 희세의 민족반역자이고 부정비리의 왕초이며 천하에 둘도 없는 정치깡패인 이회창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각계 민중은 비열한 정치모략과 권모술수로 대권욕을 채우려는 이회창을 축출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6일**

#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29일

## 김정일총비서께서 인도네시아대통령을 만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9일 조선을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을 만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일행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 인도네시아대통령이 선물을 드렸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 인도네시아공화국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이 29일 선물을 드리였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남편 따우피크 끼에마스, 외무상 누르 하싼 위라유다, 연구 및 과학기술담당 국무상 하따 라쟈싸, 체신 및 공보담당 국무상 샴술 무아리프, 국무비서 겸 내각비서 밤방 께쏘워, 조선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부하리 에펜디와 그밖의 일행이 참가하였다.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은 **김정일**령도자께 선물내용을 설명해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물을 보시고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대통령을 환영하여 연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을 환영하여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는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과 함께 남편 따우피크 끼에마스, 누르 하싼 위라유다외무상과 대통령일행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백남순외무상과 기타 간부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김영남위원장은 연설에서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는 길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시한것은 조선의 지도부와 인민에 대하여 품고 있는 대통령의 각별한 존경심과 신뢰의 정 그리고 선친의 뜻대로 두 나라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 준것으로서 조선인민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수카르노대통령각하사이의 특별한 친분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조선－인도네시아친선이 세대를 이어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년간 인도네시아정부와 인민은 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민족의 단결과 나라의 정치적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전진을 이룩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일이 계속 잘 되고 특히 나라의 령토완정을 수호하며 경제회복 10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귀국정부와 인민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는 선대지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폭 넓게 발전시켜 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지역공동의 번영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은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사이에 맺어 진 친선관계가 력사적으로 존재하여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은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을 받들어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어떤 곤난속에서도 두 나라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여러 국제무대들에서 협조를 강화해 나갈것이며 호상존중,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발전도상나라들과 함께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도네시아인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에 언제나 지지를 보내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하는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것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 특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커다란 충동을 불러 일으키리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세안지역연단에 가입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이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 조추월할머니에게 생일 백돐상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함경남도 덕성군 인동리에서 사는 조추월할머니에게 생일 백돐상을 보내시였다.

1902년 함경남도 덕성군에서 가난한 화전민의 딸로 태여 나 고된 농사일을 하며 살아 오던 할머니는 조국이 광복된후 공화국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나라의 주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참된 삶을 마음껏 누리였다.

할머니는 새 조국건설시기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의 나날 애국의 성실한 땀을 바쳐 열성껏 농사를 지었으며 년로보장 나이가 지난 후에도 오래 동안 일손을 놓지 않고 농사일을 하였다.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는 노래와 춤을 즐기며 편식을 모르고 도라지, 더덕을 비롯한 산나물과 남새 그리고 조선민족의 고유한 음식인 메주장과 김치, 오곡밥을 좋아 하고 있다.

## 해외동포들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인 총련 조선대학교 남시우명예교수와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김일순상임고문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 안고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김일성**주석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 드린 훈장들과 메달들, 조선민족이 최대의 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던 그 나날들을 다시금 돌이켜 보게 하는 울음홀과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시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리용하신 렬차와 승용차를 돌아 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 인디아주체사상 전국토론회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영원히 인류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인디아주체사상전국토론회가 23일 뉴델리에서 진행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는 보고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20세기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의 생애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인간의 생애이라고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인류의 사상정신생활령역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나고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가 펼쳐 지게 되였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조선식사회주의가 자주, 자립, 자위의 위력으로 세계무대에서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 있는것은 **김일성**주석의 자주정치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주석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 없는 헌신성과 숭고한 인간애로 혁명활동의 전 로정을 수놓아 오시였으며 세계진보적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였다.

하기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세계 도처에서 **김일성**주석의 생애를 회고하며 칭송하는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것이다.

보고자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태양의 위업을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20세기가 **김일성**주석을 태양으로 모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이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세기라면 21세기는 **김정일**령도자를 태양으로 모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는 위대한 세기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 통합전쟁연습은 북침을 노린 예비전쟁, 핵시험전쟁

≪로동신문≫ 29일부는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이 이번에 벌린 통합전쟁연습을 북침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 하나의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으로 락인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전 조선을 타고 앉아 그를 발판으로 저들의 대아시아전략과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다.

우리는 죽음도 각오하고 싸울 준비가 되여 있다. 내외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을 경각성 있게 지켜 보면서 백년숙적인 미제와 사생결단으로 싸워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 내고야 말리라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이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아무리 피를 물고 날뛰여도 소용 없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정치를 심장으로 받들고 원쑤들과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울것이며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우리의 이 혁명적립장과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은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3월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어버이수령님을 절절히 그리며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려는 인민들의 지향은 비상히 높아 가고 있다. 절세의 위인을 따라 배우려는 열의가 끓어 오르는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이 인민들속에서 더욱 광범히 애독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이 발표된 때로부터 10년이 되여 온다.

회고록은 발표된 첫 시기부터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날이 갈수록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이 광범히 출판보급되고 수령님의 위인상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는 세기와 더불어 영원히 희세의 위인의 회고록을 삶과 투쟁의 참된 좌우명으로 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 나갈 불 같은 결의가 넘쳐 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부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절세의 위인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집대성되여 있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는 80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다 바치시고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탁월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의 성스러운 혁명력사, 세계무대에서 괄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 조선혁명사가 생동하게 서술되여 있다. 력사에는 위인들의 회고록이 적지 않지만 그에 담겨 져 있는 사상리론의 진리성, 심오성에 있어서 그 내용들의 풍부성과 다방면성, 력사적사실자료들의 생동성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과 같은 위인저작이 없다. 우리 수령님의 회고록이야말로 천추만대에 길이 전해 가야 할 **김일성**민족의 만년국보이며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생전에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해놓으시고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안겨 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따라 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로 살며 싸워 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회고록에는 참다운 혁명가, 희세의 위인의 숭고한 사상정신과 비범한 령도력, 풍부한 투쟁경험과 업적이 그대로 담겨 져 있다. 누구나 회고록을 읽으면 우리 수령님의 혁명세계에 열렬히 탄복하게 되고 혁명을 하여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하고 수령님의 뜻을 이어 주체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야 말 불 같은 의지를 가다듬게 된다. 이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서 삶과 투쟁의 힘 있는 기치로, 참다운 교과서로 되고 있다. 회고록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체득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빛나게 구현해 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 같은 지향이다.

절세의 위인의 회고록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은 세대가 열백번 바뀌고 천만년 세월이 흐른다 해도 인류의 고귀한 재부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혁명의 교과서로 삼고 싸워 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더 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다.

우리 인민은 준엄한 날에나 평범한 날에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생명선으로 삼고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위인적풍모에서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받아안으며 투쟁하는 충직한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식으로 싸워 왔기에 우리 인민은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의 시련도 이겨내고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삶과 투쟁의 고귀한 지침으로 틀어 쥐고 그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 와도 수령님 열어 주신 혁명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의지는 날로 더욱 굳세여 지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회고록학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혁명가적풍모를 따라 배워 참다운 혁명관, 인생관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회고록의 갈피갈피마다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그 길에서 최대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위인적풍모가 뜨겁게 어려 있다. 혁명정신을 지녀도 위대한 수령님의 견결한 자주정신과 백절불굴의 의지, 강철의 담력을 지니고 인생관을 세워도 수령님처럼 혁명동지들과 인민들,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며 거기에서 최대의 보람과 락을 찾는것이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이다. 하기에 오늘 투철한 혁명관, 인생관을 지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의 대부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회고록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방식을 체득하고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 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는 력사의 모진 풍파를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생동하게 서술되여 있다. 시련과 난관이 아무리 겹쌓여도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고 혁명의 원쑤들의 책동이 악랄해 지고 정세가 어려울수록 언제나 맞받아 나가는 전략전술로 승리만을 떨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령도풍모이다. 무슨 일이나 멀리 앞을 내다보며 대담하게 목표를 내세우고 언제나 중심고리를 틀어 쥐고 사업전반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일본새는 오늘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 우리 인민에게 수령님식대로 싸우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신심을 더욱 북돋아 주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과제는 아름차고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 놓여 있지만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해 나가기에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강성대국건설의 높은 령마루우에 올라 서게 될것이다.

우리는 멀지 않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인류공동의 가장 뜻 깊은 명절로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뜻 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회고록학습을 더욱 심화시켜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체득하고 온 나라에 수령숭배의 열풍이 더욱 힘 있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회고록학습을 통하여 우리 수령이 제일이라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는 일찌기 14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절세의 애국자, 걸출한 위인, 불세출의 영웅으로서의 수령님의 고귀한 한생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회고록학습을 심도 있게 하여 우리 수령님이 제일이며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이 제일이라는 순결한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회고록에 담겨 져 있는 력사적사실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빛나는 예지와 선견지명, 통찰력이 얼마나 비범하며 수령님의 령도력이 얼마나 특출한가를 잘 알아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수령의 위대한 한평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 가시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회고록학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조국애와 민족애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며 그이의 덕망이 얼마나 숭고한것이였는가를 가슴 뜨겁게 새겨야 한다. 누구나 혁명동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과 고결한 의리의 세계를 심장깊이 체득하고 위대한 인간, 불세출의 위인을 수령으로 모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해야 한다. 우리 인민을 무비의 영웅성과 강의성, 높은 창조적위력을 지닌 존엄 있는 인민으로 키워 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그리움과 충성심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갈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회고록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령도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을 깊이 체득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백전백승의 선군령도의 경험과 업적이 집대성되여 있는 고귀한 재부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먼저 혁명무력을 건설하신 경험과 그에 토대하여 조국광복위업을 실현하고 당과 국가건설의 기초를 다지신 경험,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조선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게 하신 탁월한 군사적업적, 군중시의 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여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경험과 업적을 비롯하여 선군혁명령도의 업적과 경험들이 집대성되여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기초로, 주체혁명의 만년재부로 빛을 뿌리고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령도의 고귀한 업적들은 우리가 오늘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수 있는 고귀한 재부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회고록학습을 통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력사적 뿌리와 전통을 심장마다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방법과 일본새를 적극 따라 배워 강성대국건설을 오직 수령님식대로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 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불러 일으켜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창조하여 오신 우리 수령님의 대중령도방법과 인민적풍모를 체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언제나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고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헤치시며 끊임 없는 기적과 위훈의 서사시를 아로새겨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담대한 배짱과 대담하고 통이 큰 일본새,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수령님의 비상한 혁명적의지를 깊이 체득하고 빛나게 구현해 나가야 한다.

회고록학습을 심화시키는데서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깊이 있게 학습하려는 대중의 열의는 전례없이 높아 지고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는 뜻 깊은 올해에 회고록학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회고록학습을 해당 단위의 실정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며 그 과정에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적극 일반화해 나가야 한다. 회고록에 담겨 진 위대한 수령님의 명언학습, 회고록의 갈피에 새겨 진 혁명력사자료들에 대한 감상발표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체득하기 위한 사업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풍모를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끝)

#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 발표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35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29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자주정치로 조국통일을 촉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시여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우리 민족은 20세기 마지막해, 2000년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20세기는 40여년의 망국사에 50여년의 분열의 비운으로 이어진 수난에 찬 세기였습니다. 20세 중반기에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불행하게도 북과 남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하여 5000년을 두고 면면히 이어온 단일 민족의 혈맥이 끊기였고 강토가 동강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분열의 뼈아픈 고통과 불행을 체험하게 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지배와 예속, 분열을 끝장내고 민족자주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 민족은 분단 민족이라는 수치감을 안은채 민족의 번영과 통일적 발전을 심히 억제 당하였습니다. 흘러온 역사는 통일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끝장내고 민족 번영의 새 역사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새 세기의 가까운 연간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실현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셨습니다.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철의 의지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 마련된 민족사의 대사변이였고 장군님께서 통일운동사에 쌓아올리신 영구불멸한 거대한 업적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이 대국상을 당한후 우리 공화국의 정세는 참으로 엄혹했습니다.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고 피를 물고 달려들었습니다. 북남사이에는 긴장이 더욱 격화되였고 대결의 골은 나날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대결과 긴장상태는 2000년에 들어와 더욱 격화되였습니다. 분열주의세력은 광기를 부리면서 전쟁바람을 몰아왔습니다. 온 세계는 조선반도가 제2의 유고슬라비아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우리 나라에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들이 조선반도에 초점을 맞추고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89(2000)년 4월 10일,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북남합의서가 발표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대용단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북남 삼천리는 삽시에 통일열기로 들끓었습니다. 온 겨레가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열렬히 환영하고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속에서 4월 22일, 평양상봉과 관련한 첫 준비접촉이 있었고, 5월 13일에는 통신보도관계실무자접촉이 진행되였습니다. 뒤이어 5월 18일에는 평양상봉과 관련한 북남절차합의서가 타결되고 5월 31일에는 평양상봉준비를 위한 남측선발대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사태의 발전에 온 세계가 커다란 주목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주체89(2000)년 6월 13일, 그날 세계는 참으로 격동적인 사변을 목격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평양비행장에 나가시여 남조선 당국자와 남측성원들을 동포애의 뜨거운 정으로 따뜻이 맞이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차를 함께 타시고 수십리 연도를 달리시면서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온 겨레와 전 세계가 커다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남조선신문 한국일보 2000년 6월 14일부는 ≪역사적 첫상봉은 파격의 연속이였다. 순안비행장 영접, 순안-평양 승용차 동행, 연도시민 환영행사, 백화원 영빈관에서의 환담에 이르기까지 **김정일**위원장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분단 55년만에 평양을 찾은 김대중대통령을 맞았다≫라고 썼고, 그리고 신문 한겨레 인터넷 2000년 6월 15일부는 ≪평양발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세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평양에서 시시각각 보내오는 보도에 세계는 감격과 놀라움에 젖어들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참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렵고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측 성원들이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남조선 당국자와 두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특히 6월 14일에 있은 단독회담은 잠시의 휴식을 빼고 3시간 50분동안 진행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담들에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넓은 포옹력, 해박한 식견으로 통일의 근본원칙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서 마침내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북남공동선언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고향방문과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진행할데 대한 문제, 당국간 대화를 진행할데 대한 문제들이 명기되여 있습니다.

북남공동선언의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기본핵은 공동선언의 첫조항에 담겨진 민족자주정신입니다. 북남공동선언 첫조항에는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데에 대해 명기되여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북남공동선언의 핵이며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연다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이 되어 통일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주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말해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지혜와 힘, 노력으로 이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시기 북남 사이에는 통일대화들도 있었고, 공동성명과 합의서와 같은 통일문건들도 채택되였습니다. 또한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 체육분야에서의 유일팀 진출과 같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조국통일실천에서 응당한 실효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세가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은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밝힌 첫째 조항이야말로 6.15북남공동선언의 이후의 조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열쇠로 핵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핵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은 수난과 비운으로 이어진 20세기의 과거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 세기는 통일된 조선민족의 세기로 될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소리 높이 선언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입니다. 북남공동선언의 발표와 관련하여 남조선신문 동아일보의 2000년 6월 15일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한 개의 큰산을 넘었다. 단 한번의 만남으로 이런 정도의 합의를 도출해낸 것은 수뇌회담의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 기간은 이틀 밤 사흘 낮, 시간적으로는 55시간이였습니다. 그것은 민족분열의 55년에 비하면 번개같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이념과 넓은 포옹력, 크나큰 아량과 탁월한 선견지명에 의하여 민족자주통일선언인 6.15북남공동선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표된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 투쟁과 세계 평화에 커다란 기여를 한 그런 의의있는 역사적 사변입니다.

그 의의는 무엇보다도 북남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데 있습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 해서 오랫동안 북남 사이에 지속되여온 정치적대결이 현저히 완화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적 발전을 위한 여러 갈래의 접촉과 대화가 폭넓게 진행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북남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상급회담을 비롯해서 적십자회담과 군사분야의 회담들, 경제 실무접촉들이 진행되고 흩어진 가족친척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적 의리와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한꺼번에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세계사적 사변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민족의 혈맥의 통하고 국토의 지맥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통일민족사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부시를 비롯한 미호전세력들의 반통일책동 때문에 북남관계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조성되고 있지만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북남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노력은 이제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되돌려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의의는 또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데 있습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하기에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을 세계의 수십억 인구가 지켜보았습니다. 역사적인 그 장면들을 서울에서 지켜보면서 본국에 보도한 외신기자들만도 세계 173개 언론사에 503명에 달했습니다. 새 천년기 유엔수뇌자 회의에서는 북남공동선언의 후속조치들을 지지하는 공동의장들의 성명이 발표되고 유엔총회 제55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북남공동결의가 일치합의로 채택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유럽 수뇌자 회의에서도 조선문제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였습니다. 또한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시드니 올림픽 개폐막장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공동으로 입장할때 전 세계가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평화를 옹호하는 세계의 진보적 인류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으로 민족분열의 비운을 가시기 위해 장장 50여년 세월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우리 겨레는 이처럼 세기와 세기가 교차되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민족사적 사변을 맞이했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룩된 이러한 경이적인 사변을 두고 우리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통일위업의 성취가 영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대에 기어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실 철석의 의지를 가지신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민족분열의 비극사에 끝장을 내고 이 땅의 통일된 강성대국을 일떠 세우시기 위하여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7천만 겨레에게 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히는 북남공동선언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운명의 수호자이시고 통일강성대국 건설 역사의 개척자, 창조자이십니다.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이 땅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된다

## 부평미군기지 반환관련 기자회견 및 단식농성 해단식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7년간 운동의 결실을 총화하는 기자회견 및 단식농성 해단식이 30일 오전 10시 부평미군기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됐다.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는 경과보고를 통해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토론회, 24시간 시민감시단 활동, 부평미군기지 반환농성 600일 맞이 기자회견 및 올해 부평미군기지 반환의 해 선포, 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협상에 따른 부평미군기지 반환 촉구 단식농성, 부평미군기지 반환 촉구를 위한 집중 선전전 및 캠페인, 부평미군기지 반환 촉구 미대사관 1인 시위 ,부평미군기지 반환촉구 부평구 21개동 1인 시위,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인천시민 강강술래등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 단체들이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인천시민의 승리≫라고 강조한데는 다 이유가 있다. 96년부터 시작한 반환운동에 10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과 성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이 기쁨을 인천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오는 31일 오후3시 부평미군기지 반환기념 인천시민 걷기대회를 진행하며, 4월1일부터 일주간을 ≪부평미군기지 반환발표 집중 홍보활동≫을 갖는다.

또 4월7일에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 지신밟기, 4월14일 부평미군기지 반환기념 인천시민 대동한마당 등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4월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의 성과재조명 및 반환결정에 대한 대책과 토지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등을 진행해 ≪부평미군기지가 인천시민의 품≫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2의 부평미군기지 운동을 벌여낼 계획이다.

인천시민회의,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평미군기지 반환발표는 민족의 자주권과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대중운동의 결실이자, 미군의 억압속에서 50년이 넘게 숨죽여 지낸 민중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하면서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전국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숙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천만 국민들에게 절반의 승리로 발표된 연합토지관리계획 후속협상 결과와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11월 미군측이 추가공여지로 요구했던 75만 평이 이번 발표에선 두배 이상인 154만 평으로 발표 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이 컸던 매향리 폭격장, 스토리 사격장등이 제외되고 미군기지의 온상인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언급도 차후로 미뤘다. 이는 현재 야산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결국 득을 보는 것은 주한미군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국의 이득만을 취하면서 한국민을 우롱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인천시와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부평미군기지 이전(반환) 비용은 국방부 소유 토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 미군기지 이전비용중 1조 4천억 원을 우리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출하려는 것으로 미국은 자신의 전략에 따라 미군기지를 재배치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전비용 부담을 결사 반대한다.

셋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반환되는 기지내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미군측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집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결국 우리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운 것이다. 이는 지난 50여년이 넘게 무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해 먹고선 오리발을 내미는 주한미군의 더러운 작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

한상욱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장은 이와 관련 ≪우리는 앞으로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후속대책마련 투쟁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이 땅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 한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주기자
오마이뉴스 2002/03/30

부평미군기지

#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 평택시민사회단체, 범시민적 반대활동 펼칠 것

≪평택에 단 한 평의 미군기지도 확장할 수 없다≫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해온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이 30일 오전 10시 시내 중심지역인 평택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발표한 기지 확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평택지구협의회, 평택시민단체연대회의, 평택농민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되어 지난해부터 기지확장반대운동을 전개해온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이번 발표는 원천무효라며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정부당국의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발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군기지 74만평 평택 확장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처음 발표한 41만 평보다도 훨씬 많은 평택의 곡창지대와 주택이 미군기지로 공여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며 미군기지 74만평 확장을 막기 위해 싸움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리는 90년대 초반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저지시켰던 그 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 36만 평택시민과 함께 더 이산 단 한 평이라도 평택에 미군기지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발표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 내주기로 한 154만 평 중에서 오산공군기지 50만평, K-6 캠프험프리즈 24만 평 등 평택지역이 74만 평을 차지하고 있다.

이철형기자
오마이뉴스 2002/03/30

# 속빈 강정으로 국민 호도하지 말라

## 용산기지반환운동본부 김종일 위원장

용산미군 기지 반환운동을 벌여온 김종일 위원장은 29일 발표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와 관련 ≪본말을 호도시킨 속빈 포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뒤 ≪30일 국방부 앞에서 대대적인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협정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지를 양적으로 많이 돌려받고, 적게 추가공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때 문제가 많다≫면서 ≪불모지가 된 땅을 돌려받고, 주민들의 민원소지를 안고 있는 땅을 추가로 공여했다≫고 비판했다. 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는 29일 용산, 송파 등 수도권 7개 지역 대책위를 긴급 소집하고 30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오후 1시에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

다음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분석 및 평가다.

≪4만1114만평 중 3900만평이 경기도 지역 3개 미군 훈련장이다. 이 훈련장은 30-50년간 포사격장, 탱크 훈련장 등으로 이용돼 완전히 오염된 지역이다. 농사는 물론 땅을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이고, 민간인들도 살지 않아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의정부, 평택, 포항 등 새롭게 공여될 154만평 주변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간 주한미군기지 철수 운동을 벌여온 것은 민원제기 때문인데,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용산을 포함해 화성의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파주의 스토리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인 다그마노스 훈련장 등은 이번 반환 협상대상에서 빠졌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17일 한미 군당국은 LPP 협정서를 작성할 때 용산미군기지 이전도 명문화한다고 했는데 이도 빠졌다. 이전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합의내용이 시행되면 장기간 누적돼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동시에 주한미군에게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는 본말을 호도시킨 속빈 포장에 불과하다.≫

오마이뉴스 2002/03/29

# 핵전쟁을 획책하는 미국

9.11테러사건을 빌미로 보복전쟁을 감행하고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를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2단계 대테러 전쟁 시작≫을 선언한 부시 정권이 특정한 나라에 대한 핵공격을 계획하고 신형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방부가 1월 8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비밀보고서 ≪핵태세 검토(NPR)≫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북을 비롯한 이란, 이라크, 중국, 러시아,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한 핵공격 계획 책정과 지하시설 등 군사목표물과 생물화학무기 저장시설을 표적으로 한 신형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보고서는 현재 미전략사령부가 핵전쟁 계획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부연하면 부시 정권이 핵무기를 더 이상 억지력으로 활용하지 않고 선제공격 또는 실전 사용으로 핵전략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인류를 멸망시키는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이성을 잃은 자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추진할 때 핵대국들의 자기중심주의적 불공정에 대한 비판과 비핵국가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78년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NPT가입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며 95년 클린턴 정부도 이를 재확인한바 있다.

미국이 핵공격대상으로 지목한 7개국은 모두 현재 NPT에 가입하고 있다. 그 중 중국과 러시아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5개국은 비핵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파괴를 구실로 특정한 나라에 대한 핵공격 계획을 세우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핵국가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위반이다. 또한 지금까지 유지해온 상호확증파괴(MAD)를 통한 핵 억지전략을 파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직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창해온 미사일방위체제(MD)구축 명분도 없어졌다. NPR 보고서는 핵을 중심으로 한 최신무기를 최대한 증강해 그것으로 세계제패의 야망을 달성해보려는 부시 정권의 추악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93년 북미공동성명, 94년 북미기본합의문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북은 핵개발을 동결하고 있다. 그런데 부시 정권은 핵동결에 따른 경수로 제공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을 핵공격 대상으로 지목하는 한편 핵공격의 구체적 이유로 북의 남침위협을 들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짓밟으면서 저들의 패권야욕을 채우기 위해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삼아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미국의 비인간적 전쟁책동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후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화해와 협력흐름을 가로막고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들려고 날뛰는 미국정부의 위험천만한 전쟁정책을 남북이 단결하여 막아내야 한다.

미국정부는 반도덕적이고 반인류적인 핵전쟁 계획과 핵무기 개발을 당장 중지해야한다.

민족시보 제970호
2002/03/21

# 부시, 제네바합의 파기할 것

## ≪로이터통신≫ 미 고위 관계자 말 인용 보도

≪로이터통신≫은 3월 29일(미국시각)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이북이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한 최근의 부시 행정부 결정은 제네바 합의 파기의 전주곡≫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남북, 북미, 북일 대화의 재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 태도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통신은 이북이 올해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는 내년에는 이북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대북 중유 제공과 경수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두고 ≪로이터통신≫은 부시 행정부의 ABM 조약 탈퇴에 이어 군비통제에 대한 또 하나의 공격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북은 29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개발 동결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경수로건설이 당초 합의문에서 약속된 기간보다 엄청나게 미진돼 있고 주요 핵관련 부분품이 납입되자면 아직 멀고도 멀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사찰을 들고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조기 핵사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북미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북미간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사실상 무조건적인 조기 핵사찰을 압박하고 있고, 부시 행정부의 의도에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북은 전력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측의 입장 차이를 남한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나갈 것인지가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욱식기자
오마이뉴스 2002/03/30

#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대집단예술 ≪아리랑≫

한민족이라면 아이에서 노인까지 가장 많이 불려지고 사랑받는 노래, 순박한 우리민족의 쓰라림과 애환이 가득 녹아난 민요인 ≪아리랑≫. 민족 공통의 정서인 이 ≪아리랑≫을 주제로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2달동안, 평양의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매스게임)와 예술 공연 ≪아리랑≫이 열린다. 이번 ≪아리랑 축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단연 ≪아리랑≫공연이다. 10만여명이 출연하는 ≪아리랑≫공연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국내·국제 콩쿨의 수상자를 비롯해 예술인, 재능있는 청년학생들이 출연하는데 무엇보다 10만명이라는 등장인원수는 언뜻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번 공연은 그 규모가 대단하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따르면 ≪아리랑≫공연은 모두 4개의 장과 서장 및 종장, 그리고 10개의 경으로 구성되고 상영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4일 조선신보 기자들은 2장2경과 3장3경의 종합연습 관람 후 느낌을 ≪마지막부분에서는 민족옷을 입은 수십명의 출연자가 줄넘기기교를 벌여, 민족적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묘사하고 있다.

핍박받는 한민족의 저항정신이요 희노애락의 삶이 아리랑이었다면, 오늘날 그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구체화하며, 다가올 통일시대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민족모두가 한마음으로 거부하는 저항정신·대동정신을 담은 것이 ≪아리랑 축전≫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나 한반도에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지금의 시기, ≪아리랑 축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바로 내년으로 다가온 2003년은 지난 94년 북미간에 맺은 ≪제네바 합의≫의 이행 마감시한이다. 하지만 미국은 합의문을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북의 핵의혹을 이유로 사찰을 요구하며 ≪제네바 합의≫ 이행을 미루고 있다.

게다가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지난 1월 8일 미 국방부에 의해 제출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는 이북과 중국, 러시아 등 7개국을 핵 공격대상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21일부터 진행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재작년 평양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이후 높아만 가던 남북의 화해통일 분위기는 미국의 이러한 대북강경정책으로 찬물을 끼얹듯 침체되어 버렸다.

하기에 이번 ≪아리랑 축전≫은 단순한 관람과 관광의 의미도 포함되지만,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민족의 단합과 단결을 더욱더 촉진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고양시키려는 의미 또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민족의 공통적 정서와 동질성을 느끼게 될 이번 ≪아리랑 축전≫으로 그동안 이남사회에 존재했던 이북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며,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대기련 경인지부
유뉴스 2002/03/30

#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 (3)

##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최근논문의 비교연구

차 례


서론

1. 두 논문의 본질적 특징

2. 두 논문의 의의

3. 두 논문의 구성체계

4.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

 1) ≪이론문제≫의 새로운 견해

▶ 2) ≪전략적 과업≫의 새로운 견해

▶5.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과 차이점

6. 두 논문에 대한 이견

7. 새로운 이론쟁점

결론


### 2) ≪전략적 과업≫의 새로운 견해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한호석소장이 그간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전술론과 관련하여 제출하였던 논문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호석소장이 ≪전략적 과업≫에서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이후 새롭게 제기된 전략전술적 문제에 대하여 성격, 동력, 실현경로의 정연한 체계 하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였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첫째, 민족자주는 민족해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민족자주를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이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이라는 전략적 과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며 그 수행과정을 선도한다는 견해이다. 결과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좌표인 자주, 민주, 통일의 자주라는 개념이 전국적 관점의 총체적 개념으로 재정립되게 되었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둘째, 민족통일전선의 반제자주적 성격과 통일지향적 성격을 구별하며 그에 기초해서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 새롭게 밝힌 견해이다. 이는 항일시기 민족통일전선이나 다른 나라의 민족통일전선과 달리 분단된 조건에서 오늘 우리가 건설하여야 하는 민족통일전선의 두 가지 성격에 대한 해명으로 된다. 아울러 이 견해는 민족통일전선의 성격을 반제자주적 성격이나 통일지향적 성격 중 어느 하나만으로 보는 편향을 시정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 된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세째, 전략적 과업들을 수행하는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을 비교설명하면서 반제자주적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북의 반제자주역량으로, 보조동력을 남과 해외의 민족민주역량으로 규정하고 통일지향적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북의 조국통일역량과 남의 민족민주역량간의 조직적 결합으로, 보조동력을 남과 해외의 각계각층의 결집된 역량으로 규정하며 민주변혁운동의 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기층민중으로, 보조동력을 중간층으로 규정한 견해이다. 이 견해로 인하여 통일전선운동의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이라는 역량편성문제가 자주, 민주, 통일의 체계 하에 전일적으로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네째, 3대 전략적 과업의 실현경로를 설명하면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은 1단계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전략적 과업은 각각 2단계로 수행된다는 견해이다. ≪전략적 과업≫이 민주주의혁명의 단계를 일반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로 구분하는 견해와 일반민주주의실현단계에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압하며 그 근거이자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당면해서 실천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과업≫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경로도 민족통일기구수립이라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연방통일국가 건설로 나아간다는 견해를 ≪통일정세≫에 이어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로 인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는 경로가 전일적으로 해명되게 되었다.

이상의 ≪전략적 과업≫에서 새롭게 제출한 견해들은 한호석소장이 그간 발표한 논문들에서 부분적으로

➡


광고

# 6.15주간

## 제40호 (3/22~28)

**노작** – 조국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총집결하자
**특집1 - 우리에게 어떤 위협도 소용없다**
부시가 몰아온 전쟁 먹구름 걷어내자 / 반전반미투쟁 백만학도 총분기하자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 반대배격하자 / ≪육탄≫으로 장갑차를 막아선 시위대
한미군사훈련 반대 국민대회 열려 / 전쟁반대, 6.15공동선언실현 기자회견 진행
**특집2 - 이남 대통령 특사 평양간다**
남조선특사가 평양을 방문한다 / 특사파견,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임동원 방북 특사 파견을 적극 환영한다 / 정권 장악이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한가
**한국민족민주전선**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
**6.15공동선언실현**
아리랑 축전을 준비하며 / 아리랑 축전 이남 주민 참관 문제 곧 협의
**주한미군철수**
진짜 악의 근원을 들어내자 / 국방부, 끝내 미국 F15로 내정
**반통일세력단죄규탄**
고이즈미 서울행각 반대 기자회견과 규탄집회
이회창, 너는 죽어야 한다
**국보법철폐 국정원해체**
용납할 수 없는 국정원의 폭압만행
**민중연대**
발전노조, 대량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 / 교육 투쟁,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권영길대표가 이야기하는 민주노동당 정책노선과 정치진출전략

제출되거나 시사된 바는 있지만 이상의 경우처럼 체계적으로 정식화하여 공개된 것은 이전 논문과 비교해서나 다른 논문과 비교해서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 5.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과 차이점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앞서 밝혔던 그 의의와 정세인식상의 공통점 외에도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상의 공통점이 있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첫째, 이남민족민주대오가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건설하여야 하는 전략적인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이론가는 지난 논문들에 이어 이번 논문들에서도 일치하게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전략적인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인 통일전선을 민족통일전선으로 개념규정하고 있다. 두 논문은 기성이론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이나 남북통일전선이라는 개념 대신에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둘째,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자주역량의 포진구도에서 북의 반제자주역량을 중심역량으로 남의 민족민주역량을 보조역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이냐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이냐는 표현상 차이만 있을 뿐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북의 혁명역량을 중심역량으로 규정하고 남의 혁명역량을 보조역량으로 규정하는 데서 두 논문의 견해는 완전히 일치한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세째, 전국적 범위의 조선혁명을 개념규정하며 이를 지역혁명의 상위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 범위의 조선혁명을 민족해방혁명이냐 민족자주완성과업이냐는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상위의 혁명과업이 지역혁명의 당면과업을 규정하고 그 발전과정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두 논문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여기서 필자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론문제≫는 두 지역혁명의 당면과업을 규정한다고 표현하는데 비해 ≪전략적 과업≫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전략적 과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한다고 표현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네째, 전국적 관점에서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혁명역량의 조직적 결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문제≫는 ≪두개전선≫에 이어 공공연하게 조선노동당과 이남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 간의 조직적 결합을 강조하며 ≪혁명영도체계≫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과업≫은 민족자주성완성과업에 대한 설명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는 북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의 민족민주혁명역량을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하는 사상이라며 북과 남의 반제자주역량의 목적의식적인 조직체계적 배치를 강조하는 한편 자주적 평화통일실현과업에 대한 설명에서는 아예 그 중심동력을 북과 남의 혁명역량 간의 조직적 결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론문제≫와 동일한 맥락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다섯째, 이남민족민주세력이 친미예속적 반민주반통일세력을 제압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를 ≪이론문제≫가 이남민족민주세력이 상반기에 반통일세력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지 못하여 전술적으로 패배하였다는 총화와 더불어 6.15공동선언실현에 반대하는 반통일세력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지역통일전선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강조하였다면, ≪전략적 과업≫은 6.15공동선언 이후 친미예속세력이 반민주세력과 개혁세력으로, 반통일세력과 통일지향세력으로 분리되었다는 점과 일반민주주의단계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데서 이러한 투쟁이 가지는 결정적 의의를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다.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은 여섯째, 이남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을 통해서 실현되며 진보정당을 통해서만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점이다. 비록 ≪이론문제≫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편인 ≪두개전선≫은 이러한 견해를 명확히 피력하고 있다. 한편 ≪전략적 과업≫은 ≪통일정세≫에 이어 진보정당을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며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정치조직으로 규정하면서 그 의의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진보정당에 대한 견해에서는 두 논문에 대하여 이견을 가진 일부단위에서조차 일치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들은 일부 표현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두 논문에는 동일한 현상을 다른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파생되는 독특한 개념과 논리가 존재한다. 완전히 상반된 견해라고도, 단순히 표현상 차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몇가지 차이점은 물론 앞서 밝힌 견해상 공통점에 비하면 지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이론문제≫에서는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데 비해, ≪전략적 과업≫에서는 그러한 개념 대신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론문제≫는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으로서, 그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단위인 지역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그 범주와 관련지어 이남지역에서의 민족통일전선강화사업과 반통일세력제압투쟁,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전략적 과업≫은 ≪통일정세≫에 이어 북과 남의 혁명역량편성과 민족통일기구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이남에서 민족민주세력이 친미예속적 반민주반통일세력제압투쟁과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중심을 두어야 하며 이남에서와 남북해외의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둘째, ≪이론문제≫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자주운동에서나 조국통일운동에서나 일치하게 북의 혁명역량을 중심동력으로 보는 데 비해, ≪전략적 과업≫에서는 반제자주적 민족통일전선과 통일지향적 민족통일전선에서의 중심동력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과업≫은 전자의 경우에는 북의 혁명역량만을 중심동력으로 보고 후자의 경우에는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혁명역량의 조직적 결합을 중심동력으로 보고 있다. 물론 지난 논문들을 분석해 볼 때, 한호석소장이 후자의 경우에도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혁명역량간의 역량상의 차이가 있으며 북의 혁명역량을 보다 중심적인 역량으로 전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것은 세째, ≪이론문제≫에서는 두 지역혁명의 상위의 개념에 조선혁명, 주체혁명이라는 의미의 민족해방혁명이라는 개념을 두는데 비해, ≪전략적 과업≫에서는 민족자주위업완성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의 상위에 놓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론문제≫에서는 두 지역혁명과 전국혁명의 관계문제가 관심의 촛점이라면, ≪전략적 과업≫에서는 민족자주위업완성과 이남지역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전국적인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의 관계 문제, 곧 자주, 민주, 통일의 상호관계가 관심의 촛점이 되었다.

그것은 네째, ≪이론문제≫의 전편인 ≪두개전선≫에서는 전략적 타격투쟁과 전술적 타격투쟁의 개념을 제출하며 정권의 존재자체를 타격하는 투쟁과 그 속성을 타격하는 투쟁으로 규정하였는데 비해, ≪전략적 과업≫에서는 전략적 타격을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타격, 전술적 타격을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에 대한 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두 논문이 전략적 타격과 전술적 타격이라는 개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차이일 뿐 서로의 견해에 대한 부정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두 논문이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상의 차이나 일부 관점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두 이론가의 활동방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최성원동지가 이남에서 주로 주체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비합법적으로 글을 발표하고 있다면 한호석소장은 해외에서 주로 전국연합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민≫지 등에 합법적으로 글을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활동하는 두 이론가가 몇가지 개념과 표현상의 차이 외에는 기본관점이나 주된 견해에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은 주체의 새로운 전략전술개념을 정교하게 다듬어 제출한 후 활동가들의 반응을 보아가며 새로운 단계로 심화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에는 통일혁명을 영도하는 전위당이 엄연히 존재하며 전위당만이 주체의 전략전술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건에서 거침없이 주체의 전략전술의 개념과 논리를 보완하고 정식화하여 새롭게 제출하는 두 이론가의 활동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성원동지가 최근 ≪이론문제≫에서 ≪착오≫를 정정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최성원동지는 ≪이론문제≫에서 ≪두개전선≫의 착오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남북정부간의 합작은 ≪통일전선≫이 아니라 ≪공동전선≫, 정확히 표현해 ≪전술적 공동전선≫이라고 정정하고 있다. 사실 남북정부간에 ≪통일전선≫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통일전선론≫이라는 전위당의 80년대 중반논문이 제출한 견해로서 ≪통일전선≫이라는 표현을 착오라고까지 정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두개전선≫에서도 이남정부가 6.15공동선언을 파기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던 만큼 ≪두개전선≫의 ≪통일전선≫개념은 사실상 ≪이론문제≫의 ≪공동전선≫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론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통일전선≫을 ≪공동전선≫을 내포하는 광의의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전술적 공동전선≫ 개념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의의도 있지만, 필자는 최성원동지가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나 다 이론을 전개하는데서 착오를 범할 수 있으며 이론가에게 중요한 것은 착오를 범하지 않는 것 못지 않게 착오를 허심하게 인정하는 자세라는 점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둘째,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이론활동이 정세변화에 즉각적으로 조응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대하고 심오한 주체의 전략전술론을 정세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립하는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이는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이론활동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주체의 사상과 전략이라는 하나의 원류에서 출발한 것이며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표면화된 것임을 시사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세째, 전략적 개념의 표현은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일부 개념의 표현들은 뚜렷하게 차이를 둔다는 점이다. 두 논문은 우리 운동대오가 일치하게 사용하여야 할 전략적 개념들, 이를테면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 등은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표현을 달리할 수 있는 개념들은, 이를테면 주도역량과 방조역량, 중심동력과 보조동력과 같은 식으로 달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이고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일치와 표현상의 차이는 주체의 새로운 전략전술이론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개념과 논리를 입체적으로 풍부하게 조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26호)